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과거 시제에 있어서의 상 대조 분석

M. Vakhobova

Teacher of Korean language of SamSIFl.

Abstract. The purpose of learning a language, especially a foreign language, is to increase communication skills. One of the biggest difficulties in learn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s learning various categories such as tense, aspect, mood and modality. In this study, we decided to contrast and examine the perfect and repetitive forms of the past tense in Korean and Russian.

Key words: Korean, Russian, past tense, aspect, contrastive analysis.

한국어에는 러시아어의 전체성에 해당되는 상 형태가 없으므로 한국어의 상 개념을 설정하는 데는 전체성이 제외될 수밖에 없다. 즉 한국어는 유무대립에 의한 상을 해석할 수 없다.

과거 완료상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완료된 행위나 상태가 발화시점까지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에서 본 과거로,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일정한 시간의 발화시점 이전의 과거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에서는 동사에 표현되는 형태소만으로 시제와 상 범주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 상의 의미는 동사에 표현되는 형태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휘적 요소들과 부사에 의해 표현되는 결합적 표현방법에 의한 것이다.

(1) Мой брат сделал все, что должен был сделать.

(1-1) 우리 형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다 했다.

(1-2) 우리 형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했다.

위의 한국어 예문 (1-1)에서 부사 ‘다’를 삭제하면 단순과거 시제의 문장 (1-2)가 되는데 그 해야 할 일을 완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러시아어 예문 (1)의 동사 ‘сделал’는 완료상 동사 과거 시제라서 이미 완료, 다 끝남의 뜻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어로 옮길 때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해야 된다. 단순히 과거시제인 ‘해야만 하는 것을 했다’를 옮기면 ‘сделал’은 ‘делал’로 옮긴 것이 된다. 즉 러시아어에서는 과거시점에 일어나는 행위가 모두 끝난,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완료상/미완료상 동사에 의해 되고 한국어에서는 때때로 완료 된 뜻을 지니는 부사도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완료 의미를 가지는 동사의 과거 시제는 러시아어의 완료상 동사의 과거시제와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때는 ‘결과를 보유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2) Я тоже как-то сразу устал.

나도 웬일인지 곧 피곤해졌다.

위에 예문 (2)는 결과를 보유함의 의미가 나타난다. 완료상동사 ‘устал’을 사용하고 표현한다. 대응하는 한국어 예문을 보면 한국어 예문의 경우는 별 다른 부사가 없어도 이미 완료된 상태를 나타낸다.

(3) Он отдал мне книгу ушел.

그는 나한테 책을 주고 가 버렸다.

예문 (3)은 완료상 동사 ‘ушел’로 일회적인 결과 완료 의미를 표현한다. 화자는 ‘그는 어디로 가든지’ 다 상관없고, ‘가다’는 행위만 강조한다. 과거시제를 사용해서 이미 완료, 끝나는 의미도 강조한다. 예문 (3)과 대응하는 한국어 예문을 보면 완료된 의미는 ‘연결어미 + 보조동사’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가 버리-’는 가는 행위가 완성됨을 뜻한다. 따라서 일회성의 의미를 표현할 때 한국어의 ‘연결어미 + 보조동사’ 형식의 과거 시제는 러시아어 완료상 동사 과거 시제와 대응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과거 시제의 반복상을 살펴보겠다.

러시아어의 완료상 동사나 미완료상 동사는 다 반복적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한국어는 어떻게 대응되는지 알아보자.

(4) Она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стучала в дверь и ушла.

그녀는 몇 번 문을 두드리고 떠났다.

예문 (4)의 완료상 동사 ‘постучала’과 ‘ушла’은 한 행위의 완성과 새로운 동적 상황의 발생의 의미 기능을 실현한다. 이 문장에서 반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완료상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완료상 동사를 사용한다. 완료상 동사는 일회성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성 의미와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예문은 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행위는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несколько раз’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행위가 몇 번 하고 나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반복 행위는 발화시점 전에만 나타나고 발화시점 이후에 다시 안 나오고 행위가 이미 끝나서 다음 행동의 발생을 예시한다는 의미도 표현되어 있다. 한국어 번역을 보면 반복 의미를 지니는 부사 ‘몇 번’과 어미 ‘-었-’으로 실현된다.

(5) Я два раза завтракал и ходил на озеро.

난 아침을 먹고 호수에 오기를 두 번 반복했다.

예문 (5)에서 ‘два раза’에 의해서 제한적인 반복 의미가 표현된다. 그런데 (4)와 (5)의 차이는 (5)에서 완료상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미완료상 동사 ‘завтракал’와 ‘ходил’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완료상 동사는 반복적인 과정을 강조하지 않고 미완료상 동사는 딱 두 번만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그리고 완료상 동사는 앞에 계속되는 과정을 완성하고 다음 행위를 예시한다. 미완료상 동사는 완료상 동사와 다르다. 미완료상 동사는 행위가 같은 시간에 순차적으로 완성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 행위의 경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번역을 보면 예문 (5)와 똑 같이 반복적인 의미를 지니는 부사 ‘두 번’, ‘몇 번’과 어미 ‘-었-’으로 반복된 행동을 실현한다.

이상 두 예문을 통해 한국어는 러시아어의 완료상 동사로 표현된 반복과 비완료상 동사로 표현된 반복은 맥락에 의해 모두 표현할 수 있고 동사의 형태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복과 제한적인 의미가 없는 반복의 구분도 상황어에 의해서 실현되며 동사의 형태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Он часто приходил к нам домой и рассказывал интересные истории.

그는 자주 우리 집에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예문 (6)에서 미완료상 동사 ‘рассказывал’와 상황어 ‘часто’에 의해서 반복적인 의미가 실현된다. 번역된 한국어를 보면 상황어 ‘자주’와 보조동사 ‘-곤 하-’가 결합해서 실현된다. 한국어 보조동사 ‘-곤 하-’는 특히 상황어와 같이 사용하면 더욱 반복상의 의미가 강조된다. 여기서 상황어 ‘자주’ 때문에 비규칙적인 반복상이 실현된다. 예문 (6)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곤 하-’는 러시아어 미완료상 동사의 반복상과 대응될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울 때에는 학습자들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언어로서 다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학습자의 목표는 모국어와 한국어 사이에 있는 공통점 과 차이점을 알아내고 대응하며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시제와 상을 살펴보면서 러시아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에는 나타나는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즉 양 언어의 과거 시제에 있어서의 완료상과 반복상 중심으로 대조를 하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공통점 과 차이점)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러시아어에서는 과거시점에 일어나는 행위가 모두 끝난,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완료상/미완료상 동사에 의해 되고 한국어에서는 때때로 완료된 뜻을 지니는 부사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완료 의미를 가지는 동사의 과거 시제는 러시아어의 완료상 동사의 과거시제와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일회성의 의미를 표현할 때 한국어의 ‘연결어미 + 보조동사’ 형식의 과거 시제는 러시아어 완료상 동사 과거 시제와 대응될 수 있다.
- 한국어는 러시아어의 완료상 동사로 표현된 반복과 비완료상 동사로 표현된 반복은 맥락에 의해 모두 표현할 수 있고 동사의 형태적인 차이가 없다.

※ 참고 문헌

1. 고영근(2004), ‘현대 국어 시제, 서법, 동작상’, 서울, 태학사.
2. 남기심 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304-309 쪽.
3.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4. 최동주(1998), ‘시제와 상’, 문법 연구와 자료, 서태룡 외, 태학사, 227-260 쪽.
5. 김태희(2014),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상 대조 연구 -인식과 표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남기심(1978), '국어문법의 상과 시제', '한국학보', 4(3): 164-175.
7. Авилова. Н. С (1976), 'Вид глагола и семантика глагольного слова', Москва.
8. Байматова, М. (2022). Проблема перевода и адаптации непереводаем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на примере англий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Анализ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инноваций, традиций, решений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1(01), 190-192
9. Bazarova, S. S. (2022). Li Xe Jo asarlarida gender tenglik munosabatining ilgari surilishi. Oriental renaissance: Innovative, educational, natural and social sciences, 2(Special Issue 24), 180-188.
10. Назарова, Ш. Б. (2019). Ўзбек ва корейс тилида адвербализация ҳодисасининг қиёсий таҳлили.
11. Usmonqulovna, B. D., & Aziz To'liqin o'g, A. (2023). O'zbek va koreys tillarida adyektivatsiya hodisasi. Journal of new century innovations, 24(1), 46-49.
12. Eshimova, S. K. (2022). Koreys badiiy adabiyotida personifikatsiyaning ifodalanishi. Oriental renaissance: Innovative, educational, natural and social sciences, 2(Special Issue 24), 356-364.
13. Furkatovna, B. I. (2021). Discursive-pragmatic features of korean and uzbek articles on the concept of"/man" 사람.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12(2).
14. Kamarova, M. (2022). 우즈베크어와 한국어 파생법 관련 논문 사례 연구 Case studies of uzbek and korean derivation papers. Oriental renaissance: Innovative, educational, natural and social sciences, 2(Special Issue 24), 258-263.